

경제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 추진

광주 백색가전 '속탄다'

가격 10% 인상 효과 ... 소비위축 지역 경제 직격탄

내년부터 대형 TV·냉장고·에어컨·드럼세탁기 등 가전 제품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역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가 전국 생활가전 부문 생산액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소비 위축이 매출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소세 도입되면 제품가격 10% 오를 듯=27일 광주지역 가전업체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냉장고·TV·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에 대해 내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는 2008년 이전에는 특별소비세란 이름으로 부과됐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내수진작의 목적으로 1999년과 2004년에 사치품에서 생필품으로 전환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특소세가 폐지되기 전 과세율은 프로젝션TV가 8%, PDP TV 8%, 에어컨 16% 등이었다. 정부가 재추진하는 개별소비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2000cc 이하 자동차에 붙는 세율이 5% 임을 고려할 경우, 판매가의 5~10%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격 160만원 수준의 28형 에어컨의 경우 13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광주 백색가전 직격탄=삼성 가전·대우일렉트로닉스·캐리어 등 지역 가전업체들은 정부의 정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삼성 가전 관계자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및 부과세율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뒤라 말할 수 없다"면서 도시 시장 상황이 나빠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우일렉트로닉스도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대우일렉의 경우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광주공장까지 생산하고 있다. 드럼세탁기 생산량만 ▲2006년 21만대 ▲2007년 26만대 ▲2008년 35만대에 이르고 올해도 40만대를 생산할 계획

이다. 대우일렉은 전체 드럼세탁기 생산량의 20%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만큼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연간 70만대 생산 규모인 양문형 냉장고를 판매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캐리어에어컨 광주공장도 경기 침체로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국내 매출이 줄었는데 개별소비세까지 부과되면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주 가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과세율만큼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매출 감소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광주 지역 최대규모의 백색가전 벨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소세 부과는 광주경제에 직격탄에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잠들기전 아로마향 뿌려주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7일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과 미스트 제품을 선보였다. 백화점측은 잠들기 전 베개에 뿌려두면 아로마향이 피로를 풀어주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중소 제조업 절반

올 대기업 매출 초입

"하반기 채용계획 없다"

평균 3,097만원

중소 제조업체의 52.4%는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5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30.6%로 상반기(35.9%)보다 다소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채용계획을 가진 업체들의 평균 채용 예산은 3.7명으로, 상반기 중소기업의 실제 채용인원(2.4명)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이미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60.1%), '불확실한 경기 전망'(41.3%), '경영악화·사업축소'(17.1%) 등을 들었다.

또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 보조금 및 세제 지원 강화(54.0%), 근로 환경 및 복지 개선 지원(31.2%), 규제 완화 및 투자활성화 지원(26.5%)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기업 매출 신입사원의 평균 초입 연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평균 3천9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는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28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신입사원 초입연봉은 지난해 3천93만원과 비슷한 3천9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3천55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조선·중공업(3천400만원), 석유·화학업(3천120만원), 건설업(3천102만원) 등도 전체 평균 연봉보다 높았다.

이 외에 항공·운수업(3천65만원), 제조업(3천533만원), 기계·철강(2천997만원), 자동차(2천975만원), 전기·전자(2천951만원)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공기업(2천703만원)과 외국계기업(2천555만원), 중소기업(1천977만원) 등도 대기업보다 신입사원 평균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 보고서

여성 임금 오르면 출산율 ↓

남성 임금 오르면 출산율 ↑

여성의 임금 상승이 둘째 아이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작성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수보다 질적인 수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둘째 아이 출산율이 떨어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특히 여성의 임금이 10% 증가하면 둘째 아이 출산 확률이 0.56~0.9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임금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0.36~1.1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여성의 임금 상승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배우자의 소득 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셈이다.

또한 모형 예측 분석에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둘째 아이 출산율의 하락 중 17.1%가 여성의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양육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KDI는 분석했다.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의 40.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7년 53.6%에 이르렀다. 교육비 또한 급증해 가구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의 6.3%에서 2007년 12.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소비심리 호전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째 상승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CSI)가 현 경기상황과 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4개월 연속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지역 32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110)보다 2포인트 상승한 112로 3개월 연

속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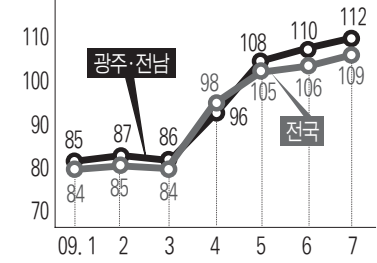
이는 지난 3월 86을 기록한 이후 4월 96, 5월 108, 6월 110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또 6개월 전과 비교한 2009년 7월의 생활형 CSI는 94에서 97로 3포인트 상승했고 6개월 후의 생활형 CSI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전망 CSI도 전달 106에서 107로 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7월 중 현재경기판단 CSI는 99로 전달보다 4포인트가 높아지면서 6월 연속 개선돼 2006년 1~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준치(100)에 근접했고 향후경기전망 CSI(111→113)도 전달보다 상승해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취업기회전망 CSI는 85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해 대부분 소득특례가 취업시장의 애로를 예상했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6개월 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가 등 물가수준(3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고용사정(29%), 수출·환율 등 대외 요인(19%), 국내 소비(14%),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융연 "올 GDP 1.8% 감소"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했던 -2.8%에 비해 1.0%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3.4%, 하반기 -0.2%로 하반기에 성장률 감소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2분기 중 저점을 통과, 급락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하반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0% 안팎에 그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2분기 중 저점을 통과, 급락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하반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0% 안팎에 그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524.05 (+21.46) 코스닥지수 504.65 (+4.63) 금리 (국고채 3년) 4.17% (+0.01) 원·달러 환율 1,244.00원 (-5.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주요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236-3400.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분양임대중) 중앙메디컬빌딩.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임대. "급"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010-223-1140, 0210-81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